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4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9장 23절-10장 2절

설교제목 : “다른 불을 담아”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룹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레10:1-2)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소의 모든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순결을 깨뜨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루십니다. 가령 구약에 보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숨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순결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속였다고 죽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간이 전리품을 감춘 행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춘 행위를 같은 동사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순결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다루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예배의 순결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출24:1)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까? 레10:9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다른 불을 사용함이 술취함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고려할만한 해석입니다. 술 취함은 지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의 문제는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인데, 술로 인해 이성과 판단력이 둔하여지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다른 불을 드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음주였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1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와이크후’입니다. ‘와우’와 ‘라카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와우는 그리고란 뜻이고, 라카흐는 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와이크후는 ‘그리고 그들이 취했다’ 뜻입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앞선 9장의 사건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기뻐 경배하며 엎드렸던 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로 하여금 지금 본 절에 나타난 행동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잘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쟁하듯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갈 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란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아닌 다른 선교사님들이 두드러지게 일하

면 그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옆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32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46년에서 57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로마의 동쪽 지역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고후11:24-27) 정작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거짓모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히고, 로마 감옥에 2년 더 있게 됩니다. 4년의 세월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개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4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빌3:1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4:4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4:10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빌1:12-18)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은 바울 자신을 시기해서 혹은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동기가 불순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연이어도, 엑스트라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첫 순결을 깨뜨린 사건에 대하여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 예를 들어봅시다.
- 2)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빌1:12-18)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